■ 광주일보·시립미술관 연중 강좌 제 1탄 탈리아 교수 강의 열기 후끈

지난 19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공동 주최로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가 열렸다. 이날 강좌에는 시민 100여명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탈리아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현대미술의 궁금증을 풀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명품 미술강좌 역시 다르네요"

시민들 수준높은 강의에 '문화 갈증' 풀어

작가들 "작품활동 지적 양분 듬뿍 받았다"

"아름다운 미술 작품도 보고, 전시실에서 수준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난 19일 오후,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상록전시관. 광주일보 주최 연중 현대미술 미술강좌인 '현대미술과 인문학' 첫 강사인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탈리아.V 교수의 '뉴욕속의 한국미술' 강의를 듣기 위해 시민·작가 100여 명이 미술관을 찾기 시작했다.

강의 전 이들은 이곳에서 열리는 '모나리자의 콧수염'전을 관람하면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감성의 작품을 감상했다. 또 탈리아 교수의 강의 원고를 미리 살펴보면서 강의를 준비하는 등 이번 강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그동안 광주에서 열린 미술 강좌의 수강생 대부분이 지역 작가나 미술대학생이었던 반면, 이날 강의의 수강생 90%는 일반 시민들이었다. 광주비엔날레를 치러내는 문화수도 광주에서 살면서도 제대로 된 현대미술강좌를 듣지 못했던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짐작할 수 있었다.

탈리아 교수의 강의는 미국, 유럽 중심이었던 현대미술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국제화단의 변화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황영성, 이매리, 박소빈 등 광주작가를 비롯해 강익중, 조숙진, 김소라, 이형구, 황란, 김주사, 최성호 등 뉴욕을 사로잡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에 감탄사를 터뜨렸다.

또 샘 리치(미국), 이사 겐첸(독일), 크리스 오필리(나이지리아) 등 뉴욕의 대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철학에 대한 탈리아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현대미술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주부 양영애(35·광주시 북구 양산동)씨는 "솔직히 현대 미술이 어려워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몰랐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실제 작품을 보여주면서 강사가 직접 설명해주니깐 쉽게 이해가 됐다"고 즐거워했다.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인가" "난해한 현대미술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나" 등 시민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탈리아 교수는 "세계화시대가 확산되고 있어 미술시장의 중심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는 않다. 최근 미술계의 중요한 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얼마나 실험적으로 표현했는지가 현대 미술의 감상포인트다"고 조언했다.

또 이날 강의를 들은 보성 우종미술관 등 지역 사설미술관 관계자와 지역 작가들도 현대 미술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고 평했다.

미디어아트 작가 이이남씨는 "작가들의 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마련돼 반갑다"면서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적인 양분을 듬뿍 받은 것 같다"고 즐거워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빛고을 천원의 행복

사랑과 이별의 오페라 아리아

오늘 황금동 어린왕자스튜디오

바리톤 이호민

테너 김성진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빛고을 천원의 행복' 2월 행사가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황금동 어린왕자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사랑, 이별, 희망을 테마로 오페라 아리아, 가곡 민요 등을 선사한다.

출연자는 바리톤 이호민씨와 테너 김성진씨, 피아노 반주는 한이슬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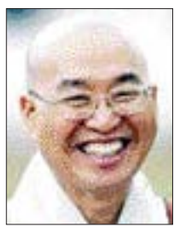
연주 레퍼토리는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이중창, 가곡 '무정한 마음', '나의 아픔을 멈춰주오' '그리운 님은 멀리 떠나' 민요 '거문과 뱃노래' 한국 가곡 '청산에 살으리라' 등이다.

가족, 연인, 친구 등에게 감사인사, 축하인사, 사랑을 전하는 '행복 플러스'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법륜스님 광주법회

내일 광주정토회 강당



실천불교에 앞장서온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이 광주불자들을 만난다.

23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정토회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법회는 전국 순회법회의 하나로 법륜스님의 강연과 즉문즉설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회에서 법륜스님은 가족해체나 패륜범죄 등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명쾌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한편, 정토불교대학이 2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매주 화요일 주간반은 오전 10시, 야간반은 오후 7시30분 법륜스님 영상강의로 1년간 진행된다. 3월 31일까지 접수 가능.

문의 062-511-899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문화시민' 될 준비 됐나요?

시카고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는 매년 여름 '특별한 캠프'를 연다.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엘더호스텔(Elderhostel)'이다. 참가비가 1인당 100만원선이지만 인기가 높다. 참가자 100명을 모집하는 공고가 뜨기 무섭게 신청자들이 줄을 잇는다.

엘더호스텔의 주무대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의 전시장. 숙소는 미술관 인근에 마련된 유스호스텔이다. 이들은 5박6일동안 미술관에서 거장들의 작품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걱정이 없다. 2명의 도슨트와 큐레이터들이 가이드를 맡아 인상주의에서 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미술에 문외한이었던 노인들은 이곳에서 '눈이 떠지는' 황홀한 체험을 한다. 미술관은 엘더호스텔 덕분에 시니어 관람객 수가 매년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 뉴욕 현대미술관 1층 안내데스크 앞은 꼬마관객들로 북적거린다. 4살 어린이와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네 살짜리를 위한 미술(Art for Four)'의 참가자들이다. 에듀케이터(educator)가 참가자들을 20명 미만의 소그룹으로 나눠 약 1시간 동안 전시실 3~4곳을 함께 돌며 그림 설명을 한다.

뉴욕 현대미술관이 그림이 뭔지도 모르는 4살짜리 아이들을 'VIP관객'으로 모시는 이유는 단 하나. 미래의 '미술관 고객(museumgoer)'을 길러내기 위해서다. 어릴 때 부터 부모 손을 잡고 전시장을 둘러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미술관을 자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인들의 문화향유는 미술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미술관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술관(미술관·박물관·동·식물원 등)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넘버 3 여행지'다. 미국인 3분의 1이 지난 6개월동안 이들 미술관을 찾았다. 하루 평균 230만명이 미술관을 방문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여름방학 같은 휴가철은 미술관에게는 말 그대로 '대목'이다. 또한 미국인 10명중 9명은 미술관이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중요한 자원이자 평생교육기관으로 여긴다. 미술관들은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미술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돕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한다.

지난 19일 첫 강의를 시작한 광주일보와 광주시립미술관의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참가자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현대미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 자주 미술관을 찾아야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뜨거운 열기는 광주 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여주는 명품강좌에 갈증을 느껴왔는지 보여준다. 사실 지역사회는 문화수도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끌어 올리는데 소홀해왔다. 이번 '현대미술과 인문학'이 문화시민의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됐으면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지 않은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문화시민의 첫번째 덕목이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

호남지역 교회 역사 고스란히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 이야기' 출간

19세기 말부터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쓴 '한국 선교 이야기'(동연출판사 펴냄)가 번역돼 나왔다.

미국 북장로교나 감리교의 한국 선교역사를 다룬 책은 이미 나왔으나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한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역사를 다룬 책으로는 첫 번째다.

저자 조지 톰슨 브라운(한국명 부명광)은 1921년 중국 지린(吉林)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1952년 내한해 광주와 목포에서 선교활동을 했고, 호남신학대 전신 격인 광주성경학원 원장을 지냈다.

브라운은 1962년에 초판을 발간한 책에서 선교사의 시각으로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을 정리했지만, 선교사들이 보고한

한국 사람들의 생활상과 역사도 충실히 전한다.

"한국의 가마는 작은 네 기둥으로 된 닫집으로 가로 세로 3자에 높이 4자 정도로 되어 있으며 메고 가는 두 장대가 있다"

호남지역 옛 모습을 묘사한 대목도 있다. "비옥하고 웃고 있는 계곡의 들머리에 아름답게 자리 잡은 도시"(순천), "바위가 많은 큰 강변 둑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림같은 마을"(목포) 등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조랑말을 타다가 다리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풍토병으로 어린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겨울밤 숙소에서 강도를 만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활동을 이어갔다.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 호남지역 선교를 담당한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동학농민운동, 일제 강점기, 3·1운동, 여순사건, 한국전쟁 등 한국사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국립한센병원, 광주제중병원, 수피아여학교 등의 주춧돌을 놓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